

TV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20 신대동여지도(재)	00 KBS 뉴스광장	00 토틀생황체조(재) 05 걸어서 세계속으로 스페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30 골든 타임	50 인간극장	00 쿠모닝 대한민국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모두 다 김지)	30 KBC 모닝와이드
8 15 쿠모닝A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 연속극 (침담동 스캔들)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소설 <순금의 땅>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트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 자전거 55 토틀생황체조(재)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20 채널A 뉴스 특보	00 여름방학특선 클로벌 다큐멘터리 55 바른말 고요말	15 사랑의 가족 45 영화가 좋다(재)	00 재취업 프로젝트 언니가 돌아왔다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 12	50 VJ 특공대(재)	00 MBC 정오뉴스 20 우리가족 우리문화	00 SBS 12 뉴스 30 닥터 365 35 2014 중흥 S-클래스 고교동문골프대회(재)
1 30 뉴스 특급	00 스퀴트(재) 45 세계는 지금 스페셜(재)		20 통일전망대	35 한국의 맛
2 40 직인직설	10 역사저널 그날(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계는 지금(재)	00 TV속의 TV	00 SBS 뉴스 10 네트워킹환경 고aying 보인다
3 50 정오관의 시사방법	00 뉴스토크	00 후토스 잃어버린 숲 25 주류명 동물 탐정 55 TV 유지원 풍다공	00 MBC 경제뉴스 10 아웅다웅 동화나라 40 아한 지구탐험대(재)	10 TV속 움직이는 세상 The 3D
4 50 박종진의 쾌도난마	00 시사진단 55 토틀 생활체조	25 애니월드 55 가족의 품격 플하우스(재)	30 특? 퓌키즈스쿨	00 에일리언 몽키스 30 내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 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생생 정보통	20 생방송 '빛날'	05 닥터 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20 부부극장 콩깍지	00 KBS 뉴스 7 30 러브 인 아시아	50 일일 드라마 (빠꾸기 등지)	15 일일연속극 (소희를 말해봐)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저니 따라부따 20 일일드라마 (사랑만하러)
8 20 다크스페셜 (고잔동 사람들)	25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30 생생정보통 플러스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보 기획 (엄마의 정원)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SBS 뉴스토리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시사기획 창 50 콘서트 필	00 월화드라마 (트로트의 연인)	00 월화특보 기획 (유경호 열지)	00 월화드라마 (유경호 열지)
11 00 모쿠드라마 <싸인>	30 KBS 뉴스라인	10 우리동네 예제능	15 PD수첩	15 매직아이
12 10 웰컴 투 시월드(재) ①:20 광화문 콘서트(재)	30 국악 한마당 ①:20 생활의 발견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세상의 모든 다크 ①:35 KBS 글로벌대기획 색 쇼 챔피언	10 MBC 뉴스24시 20 MBC 100분토론 ①:35 MBC 플러스특선 쇼 챔피언	35 나이트 라인 ①:05 더쇼

'윤일병 사건' 사회적 공분에 직격탄

MBC '진짜 사나이' 진실여부 의심
현실성 떨어지고 군대 희화화 지적
폐지 여론 고조 속 시청률은 상승



육군 28사단 병사 4구와 가족 행위로 숨진 '윤일병 사건'이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는 가운데 연예인들의 군대 체험 프로그램인 MBC TV '일밤-진짜 사나이'가 그 직격탄을 맞았다. '진짜 사나이'가 '생생한 병영 체험'을 내세웠지만, 병영 문화의 실제 민낯을 드러낸 사건-사고들이 잇따르면서 프로그램을 통해 보여지는 병영 문화의 진실여부에 의심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윤일병 사건으로 흥행한 상황에서 여전히 '군대는 멋진 곳'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이 프로그램에 불만함과 불쾌함을 느끼는 시청자가 많다.

'진짜 사나이' 홈페이지의 시청자 게시판과 포털사이트에는 윤일병 사건을 거론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을 반영하는 데다 오히려 희화화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시청자들은 "진짜 사나이"를 보고 아들을 군대 보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안심했는데 이례서 어느 부모가 군대 보낼 수 있겠느냐", "회비 내고 2박 3일간 경험하는 해병대 캠프랑 비슷한 수준이다" 등의 주장을 펴고 있다.

'진짜 사나이'가 군대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비판적인 여론에 휩싸이는 것은 하루 이를 일이 아니다. 제작진은 지난 6월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자 예정된 프로그램 녹화를 취소하고 GOP 부문을 재편집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드러난 폭력의 정도가 경악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점에서 프로그램에 불만을 느끼는 목소리가 더 커지는 분위기다.

한 누리꾼은 "'진짜사나이'를 폐지해야 한다. 군대에서 폭력, 폭력, 원대에 성고문까지 심각한 사항인데 방송을 한다는 건 가식이다. 오히려 지금 군 생활하는 장병들이 고통받는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여전히 예능 속 군대는 언제나 가불만한 보이즈카우트 놀이다. 팻캣비누로 식기를 세척하는 것도 당연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에서는 'MBC '진짜 사나이'의 폐지를 원원함니

다'라는 글까지 지난 2일 올라왔다.

청원자는 "프로그램이 군과 군부대 질서를 미화해 많은 시청자들을 우롱할뿐더러 무엇보다 촬영지인 해당 부대 사병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민폐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측은 이런 일부 여론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프로그램은 계속 제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MBC 예능을 총괄하는 원만식 본부장은 4일 "국민 한사람으로서 윤일병 사건은 정말 가슴아프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러나 '진짜 사나이'는 지난 1년 3개월 동안 호평도 많이 받았고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존폐에) 영향을 받을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전날 오후 방송된 '진짜 사나이' 시청률은 상승, 4주 만에 동시간대 코너 시청률 1위 자리에 올랐다.

시청률조사회사 TNmS에 따르면 3일 '진짜 사나이'의 전국 기준 시청률은 14.6%로 전주 동시간대 코너 1위였던 KBS 2 TV '해피선데이-1박2일 시즌3'을 앞질렀다. 이같은 시청률은 MBC가 이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 없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날 방송에서는 멤버들이 황금 독수리 부대를 찾아 유격훈련을 받는 내용이 전파를 탔다. '진짜 사나이'가 병영 문화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기에는 애초에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무래도 촬영 환경이 좋은 부대에서 제작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나후턴 막사에서 생활하는 병사들의 고충은 보여주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병사들 사이의 갈등이나 인권 침해 등 어두운 그들은 방송으로는 절대 드러낼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방송계에서는 '진짜 사나이'가 다크멘터리가 아닌, 예능프로그램인 만큼 어느 정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청할 필요가 있다는 옹호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는 "부대를 많이 돌아다니는 결과, 문제가 없진 않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을 묘여하면 문제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걸 해결하고 싶은 게 '진짜 사나이'의 목표다"라고 설명했다.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청개구리 길들이기>	14:45 미연미로	19:30 EBS 뉴스
05:40 성공 인생 후반전	10:10 EBS 특강	15:00 초능력 특공대	19:50 극한집안
06:10 명의 3.0(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15 모피와 친구들	20:40 다크 오늘
07:00 놀이터 구조대, 쏘잉(재)	11:20 세계대마기행 <캐넌라(재)>	15:30 제로니모의 모험	20:50 세계대마기행 <김치카 반도>
07:15 오스카의 오아시스(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당동명 유치원(재)	21:30 한국기행 <금요일도>
07:30 풍선 코끼리 발루보(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 2	16:20 오스카의 오아시스	21:50 EBS 다크프러임 <문명과 수학>
07:45 뽀롱뽀롱 보로로(재)	13:05 지식채널e	16:30 불티더 구조대, 보잉	22:35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08:00 당동명 유치원	13:10 초등 1년 EBS 여름방학생활	16:45 굼디와 친구들(재)	24:05 지식채널e(재)
08:20 두다다(재)	13:30 초등 3년 EBS 여름방학생활	17:00 방귀대장 풍뎉이(재)	24:10 세계 명작 극장 <사라예보 1914>
08:35 방귀대장 풍뎉이	13:50 초등 5년 EBS 여름방학생활	17:15 풍선 코끼리 발루보	01:20 시네마 천국
08:50 굼디와 친구들	14:10 아글아글 친구들	17:30 뽀롱뽀롱 보로로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14:20 풀풀! 페퍼는 즐거워	17:4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09:20 부릉!부릉! 부루미즈(재)	14:30 부릉!부릉! 부루미즈	18:00 생방송 특특! 보나하니	
09:35 뽀롱		19:00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재)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수학 I>(재)	11:4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수학 I A형>
00:50 " <수학 II>(재)	12:15 승승장승 <수학 I A형>
01:40 올림포스 <영어독해의 기본 I> <수학 I>	13:05 " <수학 II>
02:30 " <사회>	14:00 " <국어 A형>
03:20 뉴 탐스런 <생활과 윤리>	14:50 " <한국사>
04:10 " <사회>	15:40 " <동아시아사>
05:00 " <한국사상>	16:30 " <세계사>
05:50 2013 포스 <수학 I B형>	17:20 " <세계지리>
06:40 암흑탐스런 <화학 I>	18:10 " <법과 정치>
07:30 2014 포스 <문학 I>	19:00 " <생활과 윤리>
08:20 올림포스 <영어독해 기본 I>	20:00 EBS-N제 <국어 A형>(재)
09:10 " <수학 I>(재)	21:00 " <수학 A형>(재)
10:00 뉴 탐스런 <사회>(재)	22:00 인터넷 수능 <수학 B형>(재)
10:50 2013 포스 <수학 I B형>(재)	

EBS플러스2

07:00 2014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16:00 초등3년 EBS 여름방학생활
07:30 친절한 수학 익힘책이 5-1	16:20 초등4년 EBS 여름방학생활
08:00 전산세무회계 시험대비 강좌	16:50 초등5년 EBS 여름방학생활
08:30 전기기사/산업기사 시험대비 강좌	17:00 초등6년 EBS 여름방학생활
09:10 TV 중학 <국어①②>	17:20 만점왕 평가문제집 <수학집중 5-1>
09:50 " <수학 I 상>	18:00 TV 중학 <영어 3-2>
10:30 " <역사 2>	18:40 " <수학 3-2>
11:10 " <국어③④>	19:20 15일의 기적 <과학 1>
11:50 " <수학 2상>	20:00 중개학 끝장내기 <국어>
12:30 15일의 기적 <국어①②>	20:40 " <영어>
13:10 " <영어 1>	21:20 " <과학>
13:50 " <수학 1>	22:00 등산산공 <사회 3-2>
14:30 " <사회 1>	22:40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중급>
15:50 초등1년 EBS 여름방학생활	23:20 중개학포스 영문본 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5일(음 7월 10일 戊申)

子	36년생 분담하는 것도 괜찮다. 48년생 상호 연관 관계까지 감안하자. 60년생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없어졌다. 72년생 상당한 동력이 발생하리라. 84년생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현실적인 대안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61, 32
丑	37년생 실질을 숭상하자. 49년생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낼 수다. 61년생 도모하고자 한다면 이루어지는 날이다. 73년생 신뢰를 받으리라. 85년생 길흉이 혼재하니 밤참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03, 47
寅	38년생 현상이 점점 강해질 것이니 확실히 대비해야만 한다. 50년생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서 속도를 내게 될 것이다. 62년생 지나친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오만을 야기할 수 있다. 74년생 틈을 잘 때워야겠다. 행운의 숫자 : 59, 63
卯	39년생 인식하고 있는 바보다 훨씬 못 미치니 안심해도 되느니라. 51년생 중일 내리는 소나기는 없는 법이다. 63년생 정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상책이다. 75년생 변경 여부에 대해서 고민하리라. 행운의 숫자 : 76, 82
辰	40년생 생산적인 판공으로 접어들었다. 52년생 대수롭지 않은 일이나 실망할 필요도 없느니라. 64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는 법이다. 76년생 본성과 명분과는 차별화 시키는 것이 무탈하다. 행운의 숫자 : 52, 84
巳	41년생 강당할 수만 있다면 수용하는 것이 백 번 낫다. 53년생 잇속을 초월해야 참된 관계가 성립된다. 65년생 바르고 일정한 어떤 소기의 목적이 이른다. 77년생 자선스러운 것이 합리적으로 작용하리라. 행운의 숫자 : 15, 77

午	42년생 취약점을 보완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54년생 잘 선택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 하리라. 66년생 마음을 가다듬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지혜롭다. 78년생 단속적이어서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 행운의 숫자 : 23, 88
未	43년생 원만하게 타협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55년생 당황하지 말고 의연히 대처하는 것이 합당하다. 67년생 인식하는 거도에 따라서 현저한 차이가 날 것이다. 79년생 급근의 위력 앞에서 휘청거리는 형편이다. 행운의 숫자 : 31, 07
申	44년생 경험자의 지혜를 빌린다면 진적이 빠르다. 56년생 기교가 첨가 된다면 더 할 나위 없겠다. 68년생 체면이 서지 않으리라. 80년생 강풍에 우산이 뒤집힐까봐서 인간됨을 쓰며 나아가는 양태이다. 행운의 숫자 : 92, 24
酉	45년생 함께하는 과정에서 의외의 것을 얻는다. 57년생 우회적인 방법보다 직접적인 실행이 더 현명하다. 69년생 가장 가까운 이가 제일 견고한 제방이 된다. 81년생 모순이 보인다면 빌히 조처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9, 95
戌	46년생 접근성이 좋아야만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8년생 답답함을 느낄 수다. 70년생 근본적인 원인부터 분석해야 할 시점이다. 82년생 필요하다면 기다리지 말고 직접 찾아가는 것도 괜찮다. 행운의 숫자 : 96, 40
亥	47년생 철저하면서도 투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59년생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버리는 위상이나. 71년생 점검하고 대처하자. 83년생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음을 알라. 행운의 숫자 : 70, 9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연기·작품 욕심에 '두근두근'

송혜교 '두근두근 내 인생'으로 3년만에 국내 스크린 복귀

아이의 선천성 조로증에 걸렸다. 죽음을 향해 가는 속도는 젊은 부모를 앞지른다. 김애란의 첫 장편 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은 스러져가는 정춘의 꿈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죽음을 늘 안고 살아가는 젊은 부부와 이들의 이야기를 담담한 필치로 그려 출간 당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신파일 거라" 예상하고 우연히 책을 접했던 '여배우들'(2009)의 이재용 감독은 실제 '유머러스하고 따뜻한' 소설의 분위기에 휩쓸려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었다. 그러나 초고속으로 늙어가는 아이의 모습을 영화적으로 가능하리라 생각하지 않아 마음을 접었다.

그러나 '미세스 다웃파이어'(1993),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2008) 등의 영화로 아카데미 분장상을 3회나 수상한 그레고 캐넌이 프로젝트에 합류하면서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시나리오를 읽고 고개를 끄덕인 송혜교(32)와 강동원(33)도 영화에 합류했다.

다음 달 3일 개봉할 예정인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 이야기다. 송혜교와 강동원, 이재용 감독은 4일 서울 압구정 CGV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영화 촬영을 마무리한 소회를 밝혔다. 17세에 예상치 못하게 엄마가 됐지만 당찬 성격으로 아들을 보살피는 미라 역을 맡은 송혜교는 아직 미혼이지만 "모성에 연기를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연기하진 않았다"며 "모성을 다른 다른 영상들을 보며 따라 해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시나리오의 느낌을 구현하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그는 "미라의 캐릭터가 마냥 어둡지 않아 마음에 들었다"며 "평소 내 성격과 비슷한 연기하는데 편했다"고 덧붙였다. '일대종사'(2013), '태평론'(2014) 등으로 외유하고 나서 3년 만에 국내 영화계에 복귀한 송혜교는 장준환 감독의 중편 '러브 포 세일'(2010) 이후 강동원과 4년 만에 다시 호흡을 맞췄다. "4년 전에 만나서 지금껏 친분을 유지하고 있어요. '러브 포 세일' 이후에는 사적으로 만났기에 연기에 대한 열정을 잘 몰랐어요. 강동원 씨는 자기가 맡은 캐릭터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요. 제가 놓치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조언해줬습니다. 사적으로 만났을 때보다 일로 만났을 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30대로 접어들어 송혜교는 작품을 많이 하지 못한 20대가 아쉽다며 더 많은 작품을 할 30대가 기대된다고 했다. "20대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30대 때부터는 무언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작보고회 같은 이런 자리에 와야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평소에는 나이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연기에 대한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작품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요. 20대 때 더 많은 작품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요. 요즘은 일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연습뉴스

